

다시 푸는 경서

달마 혈맥론(血脈論) ⑮

佛者亦名法身 亦名佛心 此心無形相 佛者亦名法身 亦名佛心 此心無形相...

終日見而未嘗見 終日笑而未嘗笑 終日聞而未嘗聞 終日知而未嘗知...

부처란 법신이라고도 하며, 또한 불심(佛心)이라고도 한다. 마음은 형상도 없고 인과도 없고...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움직일 그 자체가 작용이니, 움직일과 작용 이외에는 마음이 없다...

마음은 형상도 인과도 빼도 없다

마치 허공같이 잡을 수도 없다

지하기가 마치 초목이나 기와조각 같아서 움직이는 아무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운동하겠는가...

마음 그대로의 작용과 작용한 것이며 마음 그대로의 움직임과 움직인 것이 별도로 움직이거나 작용한 것이 아니다...

김원각(시인·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묵산스님

정릉 보림사 주지

선 수행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한편에서는 선의 과잉이라고 집짓 우려의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선 수행을 통해 찾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일렀다. 그래도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침반이 있어야 한다.

“내가 부처요 허공이 내몸”

스님께서는 오래도록 선 수행을 해오셨습니다. 제방의 선지식을 찾아 뵙고 법을 구했는데, 법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버리라고 했어요. 금강경에 보면, 가리왕이 부처님의 목을 치고 가슴을 찌개고 허리와 팔다리를 잘라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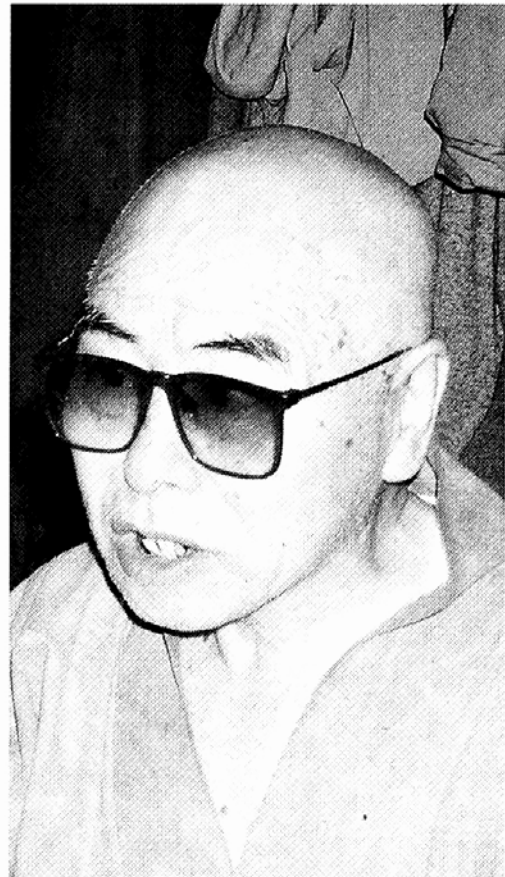
수행의 길로 들어선 큰 계기가 있을 줄 압니까?

내가 병이 많았어요. 세속에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부모를 일찍 여의었는데...

들기에, 백봉 김기추거사께서 스님께 선을 배우러 와서 같이 공부했는데, 백봉 거사가 먼저 깨쳐 스님께서 제자가 되었다는데...

백봉 선생이 보림회라는 거사님을 조직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

- 1922년 제주도 서귀포 초
47년 제주 황룡사에서 금륜스님을 은사로 출가
이후 백양사, 해인사, 대각사 등 대법선원에서 수행
30여년전 서울 정릉에 보림사 창건
매주 토요일마다 재가 수행자들을 지도하며 철이정진



를 찾아와서 여기에 와서 공부 좀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러게 하라고 해서 인연이 되었어요. 보림회는 청량리 밖 중불암사에서 모였는데 멀어서 불편하니...

알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백봉 선생의 법문을 듣고 선생으로 받들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백봉 김기추거사를 중종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부산상고에 다니다가 독립운동을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 죽을 고생을 했지요. 해방되어 감옥에서 나왔는데, 한 친구의 참성하면 견성한다는 권유를 듣고 선방에 들어갔어요...

一口吞盡三千界 水光山色自分明 轟然何處打金鐘 宗師是處不離身

가마득한 하늘이 내 집안이 분명하 이 한입으로 삼천계를 고스란히 삼켰더니 물은 물 되는 뉘 스스로가 밝더구나.

그리고 골장 집에 가서 전에 누가 갖다 준 금강경을 봤어요. 각 분(分)마다 계송을 붙였는데, 하룻밤 사이의 일이었어요. 이것이 <금강경 강승>으로 남아 있습니다.

창담스님이 출가해 학자들을 지도해달라고 했는데, 부산 남천동으로 내려가 부처님 법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했어요. 56세 때였어요. 매일 70~80명에게 설법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입을 열면 저녁 9시까지 혈담을 토해가며 20여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금강경 강승> <유마경 대강론> <선문영송 요문 1~14권> <절대경과 상대경> <선시집>을 남겼습니다.

선은 수행도 중요하지만 수행 이후의 면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려고 했듯 수행을 통해 얻은 경지에서 더 나아가 보살도를 펼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회소향대(回小向大)라고, 작은 것은 돌리고 큰 것을 나누라 한 것이데,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말만 사람지, 마음인 상종생상 수자상을 다 버려야 하는데, 그런 사람 몇이나 됩니까? 남에게 길을 잘못 가르치면 죄짓는 것이고, 남에게는 고통을 주지요. 부처님 사람이 마구니 만드는 꼴이라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게 낫지요. 심신을 가진 사람들은 공부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 얘기를 해도 아무 이익이 없어요. 사람은 순진한 게 가장 중요하니까. 말을 해주

지장보살본원경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 I.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재의 행복과 지장보살
II.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김현준 지음 / 4x6 판 / 값 3,500원

기도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취가 달라집니다.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흔히들 지장보살은 영가천도의 보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장신앙 속에는 영가천도뿐만 아니라 행복과 깨달음, 성불의 비결까지 간직되어 있습니다.

불교신학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알기 쉬운 불교서적

관음신앙·관음기도법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4x6 판 / 값 3,500원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육바라밀 수행법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반야바라밀! 4x6 판 / 값 3,500원

육바라밀 수행법은 고해의 중생을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큰 법입니다. 이 여섯 가지 바라밀의 정신을 깨달아 실천하면 누구나 행복과 성불을 보장받게 됩니다.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신국판 / 값 5,000원

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불문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작 신국판 / 값 7,000원

절에 오래 다닌 불자들조차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